

빠르게 성장하는 AI 경량화/최적화의 리더

AI 경량화·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업

노타는 AI 모델을 더 작고 빠르게, 그리고 제한된 전력과 메모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AI 경량화·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CCTV, 산업 장비, AI 반도체 등 실제 디바이스 위에서 AI를 구동하려면 추론 속도, 전력 효율, 모델 크기, 하드웨어 호환성이 핵심 병목이 된다. 노타의 사업은 이 병목을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점진적인 상용 매출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

투자 관점에서 노타의 매력은 명확하다. 첫째, AI 산업의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온디바이스 AI와 엣지 AI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둘째, 노타는 삼성전자, Arm, Qualcomm, Renesas, Sony, FuriosaAI, SiMa.ai 등 반도체·디바이스 밸류체인과 협업 레퍼런스를 축적했다. 셋째, 2025년 매출 131억원, 2026년 1분기 매출 35.8억원, 1분기 말 수주잔고 121억원을 통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점진적인 상용 매출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경량화 최적화에 강점 보이는 NetsPresso Platform

AI 투자의 초점은 대형 모델 학습 인프라에서 실제 서비스 단계의 추론 효율로 이동하고 있다. 모델이 커질수록 연산 비용과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메모리·전력·발열·지연시간이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동한다. 노타의 NetsPresso Platform은 학습된 AI 모델을 특정 하드웨어에 맞게 경량화하고 최적화해 실제 디바이스에서 구동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반도체 설계기업과 디바이스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AI 기능을 넣을 수 있느냐보다 전력과 지연시간을 감당하면서 넣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노타의 사업 영역은 AI 상용화의 하부 인프라에 가까워 플랫폼형 매출의 반복성효과가 기대된다.

Fig. 1: 노타 연결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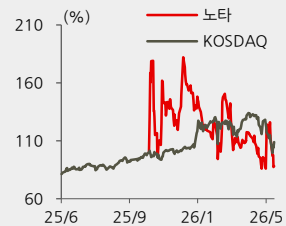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십억원)	1,578	1,507	2,501	2,777	2,915
영업이익	-109	16	442	595	621
세전이익	121	461	541	698	751
순이익[지배]	94	347	405	522	562
EPS(원)	4,291	16,023	18,795	24,241	26,103
증감률(%)	-55.6	273.4	17.3	29.0	7.7
PER(배)	42.7	12.6	14.8	11.4	10.6
PBR	1.0	1.1	1.4	1.2	1.1
EV/EBITDA	-	24.2	9.1	6.2	5.3
ROE(%)	3.0	10.8	11.4	13.0	12.5
배당수익률	0.8	0.6	0.4	0.4	0.4

자료: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투자의견	매수
[신규]	
목표주가 (6M)	44,000원 61.5%
[매수]	
현재주가	27,250원
2026/6/11	

주식지표	
시가총액	582십억원
52주최고가	56,400원
52주최저가	26,650원
상장주식수	2,135만주/0.0만주
자본금/액면가	2십억원/100원
60일평균거래량	49만주
60일평균거래대금	18십억원
외국인지분율	0.8%
자기주식수	0.0만주/0.0%
주요주주및지분율	
김태호 외	19.8%
엘비인베스트먼트	12.4%
외 2인	

추가동향



이종원

인터넷/게임/엔터
bluesky@bnkfn.co.kr
(02)2071-7657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손해보험빌딩 10층
www.bnkf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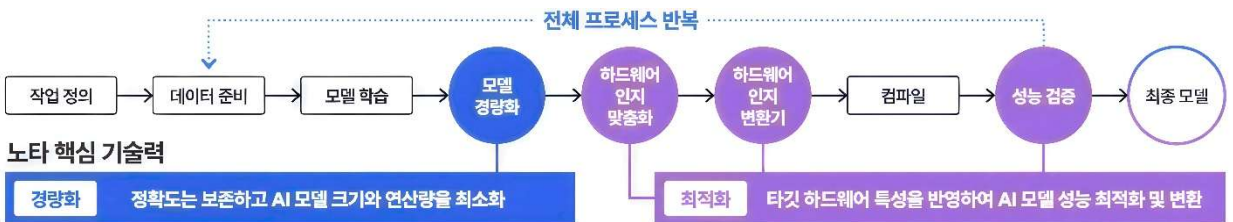
경량화·변환·최적화를 위한 NetsPresso Platform

노타의 사업은 크게 NetsPresso Platform과 NetsPresso Solution으로 나뉜다. Platform은 AI 모델 최적화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이며, 주로 반도체·디바이스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또는 구독형 구조를 지향한다. Solution은 고객의 실제 현장 문제에 맞춰 최적화된 AI 모델과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ITS, 운전자 모니터링, 안면인식, 산업안전, 영상관제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플랫폼에서 확보한 하드웨어 최적화 기술이 솔루션 경쟁력을 높이고, 솔루션 레퍼런스가 다시 플랫폼의 상용성을 증명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긍정적이다.

동사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비교적 명확한 고객 문제와 산업 밸류체인 내 위치를 갖고 있다. '26년 1분기 말 수주잔고는 121억원으로 전년 동기 56억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플랫폼 수주잔고가 102억원으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솔루션 매출은 프로젝트 진행률에 따라 단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반면, 플랫폼은 계약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식되는 구조이므로 향후 분기별 매출 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주잔고가 곧바로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기간, 검수 조건, 고객사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인식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사의 핵심 제품인 NetsPresso Platform은 AI 모델 개발의 전 주기를 자동화하고, 학습된 모델을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변환·최적화하는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엔지니어가 하드웨어별로 수작업 최적화를 수행해야 했지만, 노타는 이 과정을 자동화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론적으로 NetsPresso Solution은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특정 산업 현장에 맞춘 AI 모델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적용 분야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운전자 모니터링(DMS), 안면인식(FR), 산업안전, 선별관제, 보안 등이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반 영상 관제 솔루션인 NVA를 통해 단순 객체 인식이 아니라 영상 맥락 이해, 이상 상황 탐지, 요약, 보고 기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모델의 투자 매력은 플랫폼형 매출의 반복성과 솔루션형 매출의 빠른 상용화가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리스크는 아직 매출 규모가 작고, 대규모 R&D 인력과 해외 확장 비용이 선행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만으로는 단기간 내 손익분기점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Fig. 2: NetsPresso Platform의 경량화 및 최적화



자료: 노타,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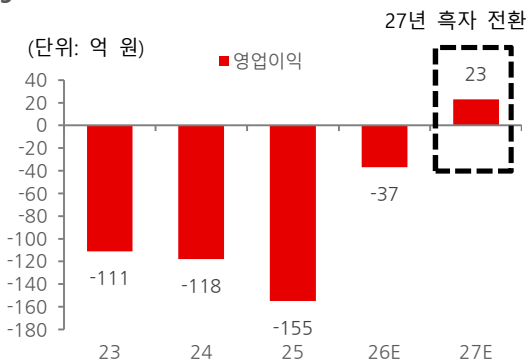
플랫폼 매출의 핵심 NetsPresso Platform의 성장옵션 확대

25년 노타의 연결 매출은 131억원으로 24년 84.4억원 대비 약 55% 증가했다. 창업 이후 처음으로 100억원대 매출에 진입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플랫폼 매출은 24년 28억원에서 25년 53억원으로 증가했고, NVA 등 솔루션 사업의 상용화도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25년 영업손실은 154억원으로 24년 120억원보다 확대되었고, 당기순손실도 16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성장은 분명하지만 R&D 인력 확충,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해외 사업 준비 등 비용 증가가 매출 증가분을 넘어선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IPO 당시 25년 매출 전망 145억원과 영업손실 전망 96억원 수준과 비교하면, 실제 매출은 전망치를 밑돌고 손실은 더 커졌는데, 이는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인정하더라도 수익성 검증이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

26년 1분기 매출은 35.8억원으로 전년 동기 약 0.67억원 대비 53.6배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42.0억원, 당기순손실은 4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손실 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1분기만 놓고 보면 솔루션 매출이 27.1억원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고, 플랫폼 매출은 8.7억원이었다. 이는 실제 현장적용형 솔루션이 단기 외형 성장을 이끌고 있음을 의미한다. 1분기 말 수주잔고 내 플랫폼 비중이 약 84%에 달한다는 점은 향후 매출 구조가 솔루션 중심에서 플랫폼-라이선스 중심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플랫폼은 계약 기간에 걸쳐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와 마진 구조가 향후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NetsPresso Platform은 노타의 장기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핵심 사업이다. 솔루션 매출은 프로젝트별 변동성이 크지만, 플랫폼 매출은 고객의 칩-디바이스 개발 프로세스 안에 들어갈 경우 반복성과 확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Exynos, Arm 생태계, FuriosaAI 데이터센터, Mobilint 엣지 AI 등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검증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레퍼런스라고 판단된다. 기술적으로 플랫폼은 모델 경량화, 양자화, 가지치기, 지식 증류, 하드웨어별 변환 및 최적화 등을 자동화 할 수 있다. NetsPresso는 모델 크기 감소, 추론 속도 및 전력효율 개선, 개발기간 단축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 지표가 고객사의 대규모 상용 계약과 반복 매출로 이어져야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영업이익 및 전망치



자료: 노타, BNK투자증권

Fig. 4: 노타 NetsPresso Platform 레퍼런스

고객	주요 사항
삼성	모바일 Soc 반도체의 온디바이스 AI 성능 개선 및 AI 개발자 플랫폼 개발에 활용
ARM	세계 최초 AVH 지원, 딥러닝 소프트웨어 둘 제공
Furiosa	AI, 서버, 데이터센터, 반도체의 활용 유연성 및 사용자 확장 톨로 사용
Renesas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개발 지원

자료: 노타, BNK투자증권

솔루션 매출의 핵심 NAV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26년 1분기 실적에서 솔루션 매출은 27.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76%를 차지했다. 이 부문은 지능형 교통, 산업안전, 선별관제, 보안, 운전자 모니터링 등 실제 물리 환경에서 AI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NVA는 비전언어모델(VLM)을 활용해 단순 객체 탐지를 넘어 영상 내 상황을 이해하고 위험 징후를 요약·보고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NVA의 장점은 고객이 비교적 명확한 ROI를 느낄 수 있는 영역에 있다. 예를 들어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교통 분야에서는 이상 상황 탐지와 운영 효율화, 보안 분야에서는 관제 인력의 피로도 감소가 직접적인 운용 효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프로젝트성 매출이 많아질 경우 구축 인력과 외주비가 함께 늘어 영업 레버리지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NVA가 단순 SI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표준화된 솔루션·라이선스 모델로 진화하는지가 중요하다. 최근 진행된 이벤트의 공통점은 노타가 단순 연구개발 회사에서 상용계약 기반의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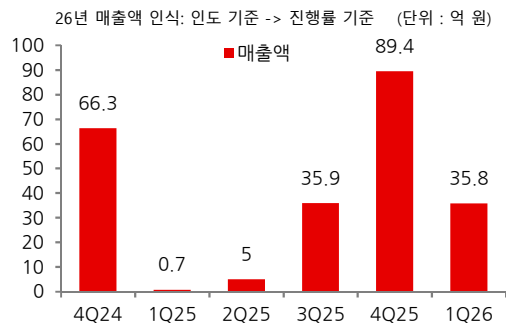
지난 24년 기준 공개된 주요 매출처 비중은 삼성전자 32.0%, 대보정보통신 14.3%, 명광 12.2% 등으로 상위 고객 의존도가 존재한다. 반도체·디바이스 고객과의 협력은 큰 장점이며, 고객사의 칩 로드맵 변경, 양산 지연, 개발 일정 변경이 노타의 매출 인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노타가 속한 온디바이스 AI·엣지 AI 시장은 AI 산업 내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영역이다. 대형언어모델과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추론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네트워크 지연, 실시간 반응성, 전력 효율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모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말기와 엣지 장비에서 직접 처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 시장에서 핵심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다. AI 반도체 업체는 칩 성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모델이 해당 칩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해야 한다. 노타의 플랫폼은 이 지점에서 반도체 업체와 디바이스 제조사의 개발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경쟁 환경도 만만치는 않다. 반도체 업체의 자체 SDK, 글로벌 클라우드·AI 프레임워크 사업자, 오픈소스 최적화 도구, 대형 SI/소프트웨어 기업이 모두 유사 영역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타가 지속적으로 프리미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고객 프로젝트를 넘어 다수 하드웨어에서 반복 사용되는 표준 플랫폼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Fig. 5 : NetsPresso Solution 레퍼런스

고객	주요 사항
UAE 두아비 교통국	국내 기업 최초 생성형 AI기반 지능형 교통 체계 솔루션 계약 체결
SONY	소니 칩셋 기반 AI 스마트 교통 솔루션 공동 개발 및 미국 레이크우드 PoC 성능 평가 1위
KBS	생성형 AI 기반 재난 CCTV AI 데이터 셋 구축, 영상분석 고도화를 통한 실시간 영상 선별 및 추천 시스템 제공

자료: 노타, BNK투자증권

Fig.6: 노타 분기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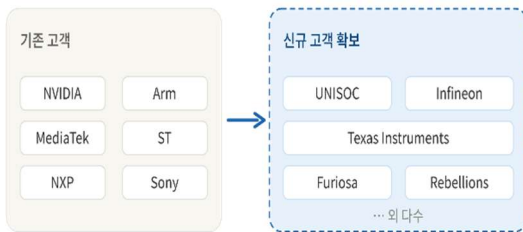
자료: 노타, BNK투자증권

Arm 및 엔비디아와 협업 레퍼런스 구축

노타는 26년 3월 23일 Arm Limited와 AI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은 28년 3월 31일까지로 계약금액은 Arm 측 요청과 비밀유지 사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노타의 역할은 Arm CPU/NPU/GPU/ISP 환경에서 AI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구동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로 추정된다. 노타와 Arm의 AI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은 동사의 AI 최적화 기술이 글로벌 반도체 IP 생태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레퍼런스 이벤트로 판단한다. 이번 계약은 28년 3월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계약으로, 단순 프로젝트성 매출보다 기술 사용권 기반의 반복 매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Arm 기반 프로세서는 모바일, 엣지 디바이스, 자동차, 로봇틱스, IoT,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노타의 Netspresso가 향후 Arm 생태계 내 AI 모델 경량화·추론 최적화 도구로 활용될 경우 플랫폼 확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과 구체적인 매출 인식 구조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 실적 기여도를 과도하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Arm 협업은 실적추정 상향 요인보다는 노타의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기술 신뢰도 제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플랫폼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중장기 밸류에이션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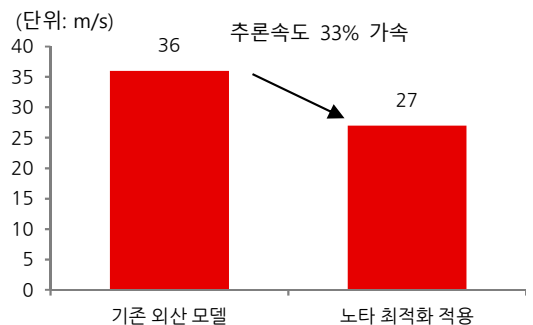
또한 최근 엔비디아와의 협업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타진되고 있다. 동사는 엔비디아 Inception, Metropolis, Jetson 생태계와의 협력 이력을 바탕으로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Netspresso와 영상 AI 에이전트 NVA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Connect 공식 파트너 선정, Jetson Partners Day 초청, VSS 기반 NVA 고도화 및 실제 교통·산업안전 현장 적용 사례는 노타의 기술이 엔비디아 엣지 AI·퍼지컬 AI 생태계와 정합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까지 엔비디아향 대규모 매출계약이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단기 실적 추정치의 상향 요인보다는 중장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레퍼런스 요인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Fig. 7: 레퍼런스 바탕 신규 고객사 확보



자료: 노타, BNK투자증권

Fig. 8: Arm NPU에 노타 적용 후 속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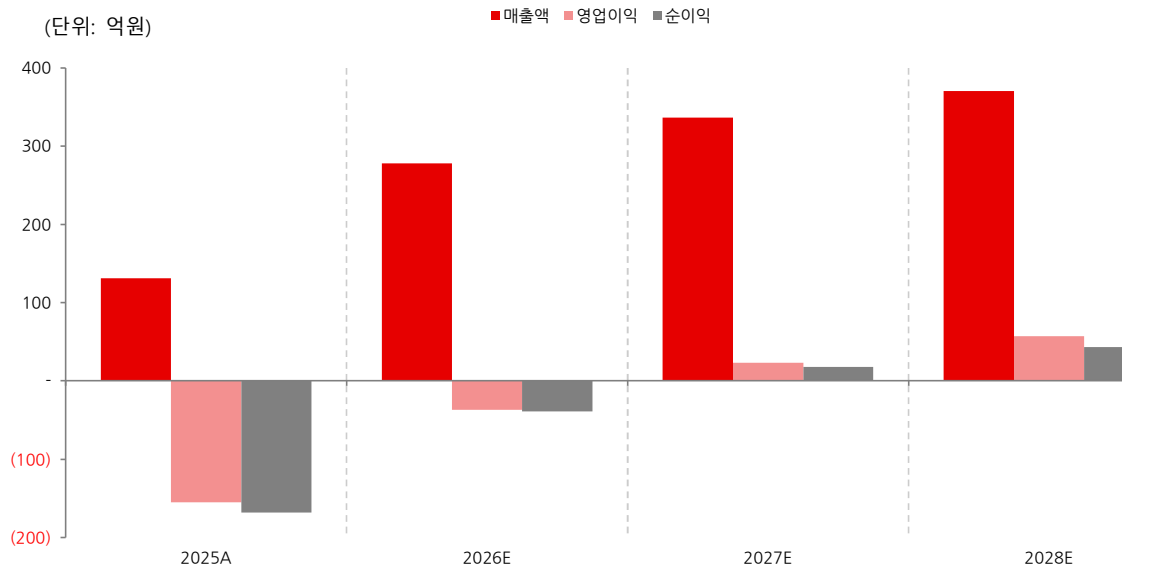
자료: 노타, BNK투자증권

온디바이스 AI 최적화의 선두주자로 성장모멘텀 보유

노타는 한국 상장사 중 온디바이스 AI 최적화라는 테마를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NetsPresso는 노타의 핵심 플랫폼으로, AI 모델을 각 하드웨어 환경에 맞게 경량화·최적화·검증해주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솔루션이다. 단순한 AI 응용 서비스가 아니라 AI 모델이 실제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인프라성 소프트웨어라는 점에서 산업적 필요성이 분명하며, 삼성전자, Arm, FuriosaAI, SiMa.ai 등과의 레퍼런스는 기술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NetsPresso는 동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설명하는 핵심 투자포인트로 판단한다. 26년 2분기와 3분기 실적에서 매출 증가와 손실 축소가 동시에 확인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노타에 대해 목표주가 38,000원을 제시한다. 목표주가는 26년 예상 매출액에 Target PSR 29배를 적용해 산출하였다. Target PSR은 글로벌 고성장 AI 소프트웨어 및 Edge AI 인프라 Peer 그룹의 상단 멀티플 대비 약 20% 할인한 수준이다. 동사는 온디바이스 AI 및 피지컬 AI 확산 국면에서 구조적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절대 매출 규모가 작고 영업적자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Peer 대비 할인 적용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AI 모델 경량화·최적화 플랫폼인 NetsPresso와 온디바이스 AI 추론 솔루션 NVA를 기반으로 로봇, 스마트 시티, 교통 인프라, 산업용 디바이스 등 피지컬 AI 시장으로 적용처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일반 AI 소프트웨어 기업 대비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 부여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수주잔고 내 플랫폼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매출성장 뿐 아니라 매출의 질 개선 가능성도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동사는 Arm·NVIDIA 등 글로벌 Edge AI 인프라 핵심 기업의 생태계와 연결될 수 있는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이라는 희소성을 보유하고 있다. '26년 예상 매출 달성과 플랫폼 매출 비중 확대가 가시화될 경우 제시된 목표주가는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판단한다.

Fig. 9: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및 전망치



자료: 노타, BNK투자증권

재무상태표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21	36	43	49	55
현금성자산	7	12	14	19	25
매출채권	2	5	6	6	7
재고자산	0	0	0	0	0
비유동자산	7	6	5	5	5
투자자산	0	0	0	0	0
유형자산	1	1	1	0	0
무형자산	0	0	0	0	0
자산총계	27	42	48	54	60
유동부채	94	11	19	23	24
매입채무	0	0	0	0	0
단기차입금	5	4	4	4	4
비유동부채	4	4	5	6	6
사채및장기차입금	0	0	0	0	0
부채총계	98	15	24	28	31
지배기업지분	-71	27	24	25	30
자본금	0	2	2	2	2
자본잉여금	3	114	114	114	114
이익잉여금	-74	-91	-95	-93	-89
자본총계	-71	27	24	25	30
총차입금	95	7	9	9	10
순차입금	76	-23	-27	-32	-38

현금흐름표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현금흐름	-11	-12	5	5	6
당기순이익	-25	-17	-4	2	4
비현금비용	18	7	1	1	1
감가상각비	2	2	1	0	0
비현금수익	-1	0	-1	-1	-1
자산및부채의증감	-3	-2	8	3	1
매출채권감소	-1	-3	-1	-1	-1
재고자산감소	0	0	0	0	0
매입채무증가	0	0	0	0	0
법인세환급(납부)	0	0	0	0	-1
투자활동현금흐름	-13	-7	-4	0	0
유형자산증가	-1	0	0	0	0
유형자산감소	0	0	0	0	0
무형자산순감	0	0	0	0	0
재무활동현금흐름	28	24	1	1	0
차입금증가	44	-87	1	1	0
자본의증감	3	113	0	0	0
배당금지급	0	0	0	0	0
현금의증가	4	5	2	5	6
기말현금	7	12	14	19	25
잉여현금흐름(FCF)	-12	-12	5	5	6

자료: 감사보고서(12월 결산),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8	13	28	34	37
매출원가	0	0	0	0	0
매출총이익	8	13	28	34	37
매출총이익률	100.0	100.0	100.0	100.0	100.0
판매비와관리비	20	28	31	31	31
판매비율	250.0	215.4	110.7	91.2	83.8
영업이익	-12	-15	-4	2	6
영업이익률	-150.0	-115.4	-14.3	5.9	16.2
EBITDA	-10	-14	-3	3	6
영업외손익	-13	-1	0	0	0
금융이자손익	-4	-1	0	0	0
외화관련손익	0	0	0	0	0
기타영업외손익	-9	0	0	0	0
세전이익	-25	-17	-4	2	5
세전이익률	-312.5	-130.8	-14.3	5.9	13.5
법인세비용	0	0	0	0	1
법인세율	0.0	0.0	0.0	0.0	20.0
계속사업이익	-25	-17	-4	2	4
당기순이익	-25	-17	-4	2	4
당기순이익률	-312.5	-130.8	-14.3	5.9	10.8
지배기업순이익	-25	-17	-4	2	4
총포괄손익	-25	-17	-4	2	4

주요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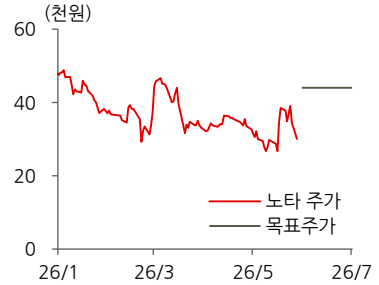
	2024	2025	2026F	2027F	2028F
EPS (원)	-2,798	-978	-182	85	202
BPS	-7,440	1,288	1,104	1,189	1,392
CFPS	-879	-614	-164	91	236
DPS	0	0	0	0	0
PER (배)	-	-	-	318.9	134.8
PSR	-	60.1	20.9	17.3	15.7
PBR	-	36.0	24.7	22.9	19.6
PCR	-	-	-	299.2	115.2
EV/EBITDA	-	-	-	210.5	93.6
배당성향 (%)	0.0	0.0	0.0	0.0	0.0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매출액증가율	135.6	55.3	112.0	21.0	10.0
영업이익증가율	0.0	0.0	0.0	0.0	147.9
순이익증가율	0.0	0.0	0.0	0.0	136.5
EPS증가율	0.0	0.0	0.0	0.0	136.5
부채비율 (%)	-138.9	54.0	103.9	111.5	102.7
차입금비율	-134.3	27.2	37.7	37.2	32.8
순차입금/자기자본	-108.3	-82.7	-115.7	-125.9	-126.4
ROA (%)	-147.1	-47.7	-8.6	3.6	7.6
ROE	41.9	77.2	-15.2	7.5	15.7
ROIC	-350.8	-234.9	-137.4	-107.7	-130.1

주: K-IFRS 연결 기준, 2026/6/11 종가 기준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종목명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6M)	과리율(%)	
				평균	H/L
노타 (486990)	26/06/12	매수	44,000원	-	-

주가 및 목표주가 변동 추이(2Y)



투자등급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 대비 해당 종목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함.)

기업: 6개월 예상수익률 / 매수(Buy) +15% 이상, 보유(Hold) -15~+15%, 매도(Sell) -15% 이하

산업: 6개월 투자비중에 대한 의견 / 비중확대(Overweight), 중립(Neutral), 비중축소(underweight)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2026.03.31기준) / 매수(Buy) 75.4%, 보유(Hold) 24.6%, 매도(Sell) 0.0%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중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